

# 징계절차 신속처리·자정기능 강화

## 숫자로 보는 조계종

제175회 조계종 중앙총회 중무보고에 따르면,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은 모두 1455명이고 조계종 홈페이지 1일 평균 방문객은 2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호법부에 133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 중 68건이 종결되고 현재 65건이 조사 중이다. 징계에 회부된 39건 중에서는 벌금만 152건, 재직이 142건, 공판정자가 10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 기본교육기관에 1455명 재학 중

▲종합민원실 운영 현황=지난 1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문을 연 종합민원실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승적증명·수계확인·재직증명 등의 증명발급업무가 561건, 신도등록 및 재발급은 모두 5185건이 이뤄졌다. 전화민원은 두 달간 모두 1964건이, 대기 우편물 관리는 1270건이 각각 처리됐다.

▲종단 홈페이지 운영 현황=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의 총 회원 가입자는 9546명이며 월별 총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8월 76,595명 9월 81,048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2627명이 방문한 셈이다. 또한 민원게시판에는 게시된 글은 8월 40건, 9월 25건이다.

▲불교중앙박물관 운영 현황=지난 4월 문을 연 불교중앙박물관에는 현재 총 254건 1372점의 유물이 있으며, 이 중 보물 4건, 지방문화재 2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동 광홍사와 의성 운암사 등 기탁유물의 인수인계에 따라 기탁유물은 총 310건 1208점이며 소장유물은 71건 587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

자원봉사의 경우 1·2기 불교중앙박물관 문화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213명이 활동 중이다.

▲기본교육기관 현황=지난 9월 30일 현재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학인은 모두 14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9개 강원도에 872명, 중앙승가대학교에 239명,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 58명,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119명, 기본선원에 167명이 각각 재학 중이다. 13개 사미 강원에는 385명이, 6개 사미니 강원에는 487명이 재학 중이다. 사미 강원 중에는 송광사 강원이 68명으로, 사미니 강원 중에는 운문사가 206명으로 가장 많은 학인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특수교육기관 중에는 불교아산작법학교에 57명, 화엄학원에 12명, 운문 비구니승가대학원에 4명이 각각 재학 중이다.

▲국제간화선 사이트=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3개 국제간화선 사이트에는 8~9월 두 달간 총 256,875명이 접속해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3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접속자 수가 많았다. 여수령 기자

## 조계종 175회 중앙총회 결산

조계종 175회 중앙총회는 11월 5~6일 열린 본회의에서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한 '호계원법'과 교수선관위의 직무 방기를 견제하는 '산중총회법', 교육현실에 맞도록 범조항을 정비한 '교육법'을 개정했다. 또한 '중앙총회 운영규칙'을 개정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종단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종단 자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호계원법'은 징계대상자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2회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호계위원회'는 사건심리의

편재에 맞도록 교육부 내 총무국과 교육국을 통합하고, 연수국과 불학연구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중앙승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기본교육기관으로 분직에 평가하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발맞춰 범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한편 '중앙총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해 논의를 끝냈다. 기존에 본회의의 표결을 거수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탈피, 전자투표기로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종회의원들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회의원들은 본회의의 개최·폐회 때만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회의 진행시에는 두루마기를 수하도록 했다.

중앙총회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도 이어졌다. '중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화계사와 혐의한 결과 지금의 담배회관 부지에 동국

## 산중총회 운영 강화·교육법 범조항 정비

## 중앙총회 운영규칙 개정 전자투표 도입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건 심리에 2회 이상 불출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불출석할 경우 심리일 3일 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호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교수선관리위원회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기하거나 위법한 결정이 할 때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일례로 최근 불의를 일으킨 제23교구 제주 관사의 교수선관위가 산중총회를 열지 않고 방기했음에도, 교수선관위원회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기존 조항 때문에, 선관위원의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 '산중총회법'에서는 '교수선관리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수분사 주지의 요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교육법'은 현재 교육원의

대 중비생 수행관인 백상원을 건립하도록 했다'며 "다음 전체 대륙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수행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불기가 세계 공용 불기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으로 구성된 '불기사용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통한 불기 제정 당시 2500년을 1956년인 57년인 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각국마다 다른 불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WFB와 국제불교사회의 명확한 확인 절차 후 내년 3월 종회 때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종정감사특별위원회' 보고에서는 "종감 특위를 구성했음에도 총무·재정분과가 또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종회의장 자승 스님이 "작년에도 종정 특감 감사 기간이 일정치 않아 연장해가면서 했다. 이번에도 정정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 다음부터 잘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 사업자 선정

〈인문한국〉

## 學振, 10년간 최대 80억 원 지원

전대종 금강대(총장 성낙승) 불교문화연구소가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10년 간 최대 80억 원을 지원받게 돼 불교학을 심층 연구하는 토대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삼만) 이하 학진은 11월 7일 인문한국지원사업(이하 HK)에 최종 선정된 연구소(단)를 발표했다. HK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연구부분 세부사업이다. 인문학의 세계적 담론과 소통을 주도하는 연구소 육성을 목표로 규모에 따라 대형 연 10~15억 원, 중형 5~8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69개 대학(교)의 153

개 연구소(단)가 지원해 24개 기관 30개 연구소(단)가 예비 선정된 바 있으며, 불교계에서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번에 HK 대상자로 선정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연구과제는 안성두 박사의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동 및 수용 과정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등으로 쓰여진 불교 고전문헌을 연구해 특정 시기의 인도·동아시아·티베트 불교의 형성과정과 수용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측은 △불교 고전어·불교 고전문헌에 대한 다층적 접근 △통합적 불교문화 연구의 국제 불교학 전문연구자 발굴 및 양성 △국제적 불교학 네트워크 조직 형성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베트남전 전몰 양국 영령 영산대제'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0월 27일 베트남 천년고찰 가우 사원에서 '베트남전 전몰 양국 영령 영산대제'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총회의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 총무원 부원장 겸 불원사 주지 환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 스님들과 쓰이 하이젠 군수 등 베트남 현지인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 "문화재관람료 바로알자"

## 조계종 교육자료집 발간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웅)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집 <국립공원 문화재와 문화재관람료 바로알기·사진>을 발간했다. 문화재의 개념과 문화재관람료의 필요성,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판결요지 등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재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국립공원 내 문화재사찰의 사역(畵圖)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자료집은 총 3000부 제작돼 국립공원을 포함한 문화재사찰 및 관련 단체에 배포된다. 여수령 기자

# '10.27 특별법 제정' 추진 시동

## 조계종, 추진위 발족 등

10.27법안에 대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이어, 법안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자승 스님은 제175회 중앙총회 마지막 날인 11월 6일 10.27법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10.27 법안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후 추속조치를 신속히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에는 이날

오전 중무회의에서 '10.27법안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총무부장 원학 스님과 10.27법안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장 법타 스님을 공동위원장에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내용을 검토했다. 법안은 10.27법안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책임지고 10.27법안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 현대불교신문

##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취재),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홍보 영상,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온 www.yosion.com

현대불교 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총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대전총부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불교의 중흥은 선지식 양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5000원 1구좌 갖기 운동, 여러분의 정성이 승가교육의 희망이 됩니다!

##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 출범식

대한불교조계종 승려기본교육기관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수행·교육·연구 도량으로서 위의를 갖추기 위한 교육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의 출범은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사부대중의 정성을 하나로 모아 불교 중흥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승가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후원의 시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함장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정범



- 일 시: 불기 2551년('07)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13:00~16:30
- 장 소: 중앙승가대학교 자비관 4층 대강당
- 식 순: 1부 총장 스님 특별 법문(13:00-13:50)  
 2부 출범식(14:00-15:30)  
 3부 문화 공연(15:30-16:30)

### \* 후원하시는 방법

CMS 출금자동이체를 이용한 5000원 1구좌 후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후원회원 신청서(양정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안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신청서 다운 인터넷 주소: http://sangha.ac.kr

### \*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다음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국민은행: 253401-04-117893 농협: 1336-01-000255  
 신한은행: 100-023-109088 우리은행: 1005-101-167780  
 외환은행: 630-005654-583 우체국: 100529-01-005197  
 (무통장입금 후원회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후원문의 및 신청서 접수

전화: (031) 980-7892~3 팩스: (031) 980-7891

